

詩的話者와 作中人物의 欲望構造 研究

양 영 길 *

目 次

- I. 序 論
- II. 詩的話者의 欲望構造
 - 1. 話者의 距離
 - 2. 欲望의 變奏와 垂直 移動
- III. 作中人物의 欲望構造
 - 1. 欲望의 移動
 - 2. 빛나간 上昇
- IV. 달혀있는 欲望과 열려있는 欲望
- V. 結 論

I. 序 論

인간이 갖는 욕망은 문학 속에 어떻게 투영되고 있는가. 또 문학 속의 욕망은 어떻게 변주되어 문학성을 극대화하고 욕망의 궁극성에 이르고 있는가. 이 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시적화자와 작중인물의 욕망구조를 통해서 해명해 보고자 한다.

욕망은 결핍에서부터 싹터서 모방으로 시작된다. 이러한 모방욕망은 그 주체가 대상을 가짐으로써 비롯된다.¹⁾ 여기에는 주체가 대상에 다 다르도록 도와주거나 이와 반대로 방해하는 중개자가 존재하게 된다. 결국 주체는 중개자의 도움을 받거나

* 제주대 강사, 제주대 박사과정.

1) 르네 지라르, 『소설의 이론』, 김윤식 역, 삼영사, 1983, p.97.

방해를 받음으로써 욕망의 궁극성인 대상에 어떠한 형태로 근접하려는 구조를 갖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중개자에 대한 주체의 감정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여 역동성을 갖게 된다. 이러한 변화의 근원은 선망과 증오의 양면성을 갖고 대상이나 중개자에 대한 거리 조정에 의해서 문학적인 극대화를 이루는 힘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러한 거리 조정에 의해서 시적화자와 작중인물의 욕망은 대상의 욕망을 모방 복제하여 변주되거나 변질되고 이를 재구성하는 과정이 끊임없이 반복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은 텍스트를 중심으로 욕망의 구조를 파악하고, 그것이 어떻게 문학적인 극대화에 이르는가를 문학의 연장선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즉, 문학의 본질은 시적화자나 작중인물의 정서와 깊이 관계하며, 이러한 정서는 욕망의 구조를 통해서 문학적 원리를 해명할 때 밝혀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한용운의 詩 「당신을 보았습니다」와 이문열의 단편소설 「金翅鳥」를 텍스트로 삼고 있다. 두 개의 서로 다른 장르의 작품을 텍스트로 삼은 이유는 문학적 원리의 구명은 장르를 제한할 때, 미시적인 관점에 머무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두 개의 텍스트는 모방 욕망의 복제에서부터 재구성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선명하게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II. 詩的話者의 欲望構造

개인의 정서를 바탕으로 한 독백 형식이나 호소 형식의 시에 있어서 그 욕망은 어떠한 모양을 하고 있을까. 그리고 그 욕망을 어떻게 다스리면 시적인 정서에 닿을 수 있을까. 이러한 물음에 답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한 편의 텍스트에서 시적화자의 욕망이 어떻게 그 전달체계를 만들어 놓고 있느냐의 문제를 살펴보면 그 원리를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시적화자가 자신을 비롯한 청자와 화제를 어떠한 거리에서 바라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욕망의 구조는 달라지기 때문이다. 또한 그 거리를 어떻게 이동하느냐에 따라 욕망의 구조도 이동하게 되며, 독백이나 호소의 내용도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우선 한용운의 「당신을 보았습니다」 전문을 살펴보고자 한다.

당신이 가신 뒤로 나는 당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까닭은 당신을 위하느니보다 나를 위함이 많습니다.

나는 갈고 심을 땅이 없으므로 추수가 없습니다.
저녁꺼리가 없어서 조나 감자를 꾸러 이웃집에 갔더니 주인은 「거지는 인격이 없다. 인격이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다. 너를 도와 주는 것은 죄악이다」고 말하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 돌아 나올 때에 쏟아지는 눈물 속에서 당신을 보았습니다.

나는 집도 없고 다른 까닭을 곁하여 민적이 없습니다.
「민적이 없는 자는 인권이 없다. 인권이 없는 너에게 무슨 정조냐」하고 능욕하려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를 항거한 뒤에 남에게 대한 격분이 스스로의 슬픔으로 화하는 찰나에 당신을 보았습니다.

아아 온갖 윤리·도덕·법률은 칼과 황금을 제사지내는 언기인 줄을 알았습니다.

영원의 사랑을 받을까 인간 역사의 첫 페이지에 잉크칠을 할까 술을 마실까 망설일 때에 당신을 보았습니다.

1. 話者의 距離

시적화자에게 있어서 거리의 문제는 욕망구조인 정서 전달체계를 지배하는 요소로 작용하여 주체의 독백이나 대상을 향한 호소의 내용을 결정짓게 된다. 따라서 주체의 독백이나 호소의 내용은 욕망의 구조를 선택한다고 할 수 있다. 텍스트에서 청자를 현상적으로 등장시킨 것도 결국 욕망구조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현상적으로 청자를 등장시키는 경우에 있어서는 주체와 청자 사이의 거리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좁은 거리에서 멀어지거나, 아니면 먼 거리에서 좁아지는 등 여러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으나 텍스트의 경우는 먼 거리에서 가까워지고 있는 경우로, 첫 줄에서의 떠남과 마지막 줄에서의 현현으로 현상적 화자는 그 욕망을 보다 객관적 거리에 두고 있다. 이는 궁극적인 욕망구조에서 욕망의 대상(object of desire)을 '당신'으로 설정함으로써 가능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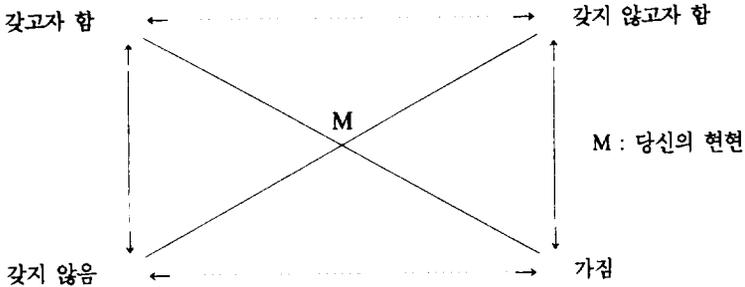
그리고 화자가 화제를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는 '당신'에게 자신의 처지를 알리는

정보 전달에 치중하고 있어 매우 가까운 거리를 유지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가까운 거리에서 화제를 대하고 있는 경우는 '눈물', '격분'과 같은 직접적 표현의 경우이며, '땅'이 없음으로 야기되는 결핍과 '집'이 없음으로 말미암은 수모, 그리고 '이웃', '장군', '칼과 황금' 등에 와서는 환유할 수 있는 거리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환유를 바탕으로 욕망의 모습을 살펴보면, 그 모습은 한 개의 폐쇄적인 욕망에서 여러 갈래로 분지되는 형태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분지된 하나의 욕망은 또 다른 갈래로 분지되어 화제를 심화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폐쇄적인 욕망은 '당신'과의 거리가 무너지면서 — 마지막 줄에서의 현현 — 팽팽한 긴장이 깨어지고 있다. 이는 '갖고자 함'에서 '갖지 않고자 함'으로 초월할 수 있는 힘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를 그레마스의 기호학적 사각형으로 다음과 같이 나타내 볼 수 있다.



이를 텍스트의 흐름으로 해석하면, '갖지 않음 → 갖고자 함 → 중개자 : 당신 → 갖지 않고자 함'으로 도식화할 수 있다. 이러한 흐름은 당신의 부재에서 오는 결핍이 마지막 줄에 와서 현현하면서 결핍 그 자체를 부인할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이다. 이는 거리를 조정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이러한 거리의 조정은 '당신'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멀리 두고 있지만 마지막 줄에 이르러서는 매우 가까운 거리에 두고 있다. 이러한 가까운 거리는 앞에서의 모든 결핍된 것을 초월할 수 있는 힘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러한 초월의 힘은 다음과 같은 욕망의 변주를 통해서 일어난다고 할 수 있다.

2. 欲望의 變奏와 垂直 移動

욕망은 변화한다. 그냥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도움이나 방해로 받음으로써 변주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변주는 텍스트의 경우 다음과 같은 단계로 변주되고 있다.

- ㉠ 땅을 통해서 생명을 구걸하지 않고 사람으로 대접받는 것
- ㉡ 집을 통해서 민적을 얻고 인간적 권리를 행사하는 것
- ㉢ 이러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칼과 황금을 갖는 것
- ㉣ 당신이 있기에 칼과 황금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

이러한 욕망의 흐름은 ㉠ - ㉣까지는 단계적으로 수평이동하고 있지만 ㉣에 이르러서는 수직적으로 상승하여 ㉠ - ㉢의 욕망은 욕구로 변질되어 버리고,²⁾ 궁극적인 욕망인 '당신'만 남게 된다.

이러한 수직적 상승은 '당신'의 떠남을 부정하고, 더 나아가 떠남 자체를 초월하는 힘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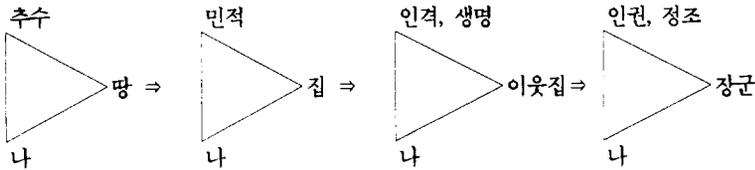
즉, 첫줄에서 '당신'이 떠난 후에 마지막 줄 이전까지의 '당신을 보았습니다'는 방해받는 여러 요소들로 말미암아 대상을 막연한 거리에 위치시켜 그리워하고 있으며, 마지막 줄에서의 '당신을 보았습니다'는 대상을 매우 가까운 거리로 끌어당겨 주체 앞에 현현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주체 앞에 대상을 끌어당길 수 있는 힘은, 욕망 추구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주체의 의식에 잠재적으로 축적되어 발생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욕망은 역동성을 갖게 되어 힘으로 작용하면서 그 동안의 욕망 대상(㉠ - ㉢)을 뛰어넘어 초월(㉣)적으로 수직 상승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주체의 결핍은 '땅 → 추수 → 저녁거리 → 인적 → 생명'과 '집 → 민적 → 인권 → 정조'이며, 이것들을 충족시켜 주는 것은 '칼과 황금'이다. 따라서 첫 번째의 욕망의 구조는 '칼과 황금'이 중개자가 되고 '이웃'과 '장군'이 그 대상이 된다. 이는 1차적인 욕망의 대상에 대한 감정이 '눈물'과 '격분'으로 말미암아 궁극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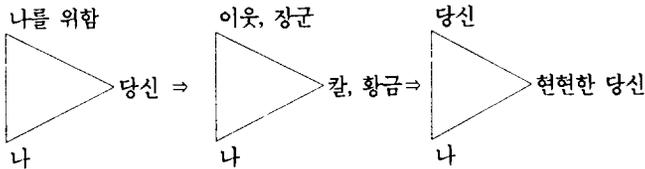
2) 아니키 르메르, 「자크 라캉, 이미션 옮김, 문예출판사, 1994, p.247.

인 욕망의 대상인 '당신'을 갈망하게 된다. 그러나 윤리·도덕·법률은 오직 1차적인 욕망의 대상을 위하여 봉사하는 존재일 뿐임을 깨닫고 이를 부인하고, 궁극적인 대상을 찾게 된다. 즉, '당신'을 대상으로 놓고 중개자인 '현현한 당신'을 만남으로써 '당신'이 떠나기 전으로 회귀하려는 것이다.

우선 방해받는 욕망의 구조를 다음과 같이 그려볼 수 있다.



이러한 방해받는 욕망은 그 대상을 모방하려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중개자를 모방하게 되어 대상과 중개자의 위치가 서로 뒤바뀌는 변질을 거쳐 재편성되는 과정을 거친 다음에 궁극적인 욕망의 모습을 갖추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궁극적으로 욕망이 변주하는 구조를 다음과 같이 살펴볼 수 있다.



위의 궁극적으로 변주되고 있는 욕망의 구조를 살펴보면, '현현한 당신'에 앞서 많은 방해받아 '눈물'과 '격분'을 겪음으로써 '당신'을 현현할 수 있는 힘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도와주는 중개자를 통하여 욕망하는 것이 아니라 방해하는 중개자와 대항하는 욕망으로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시적화자가 갖는 '당신'에 대한 신망(prestige)은 욕망을 일깨워주는 존재와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Ⅲ. 作中人物의 欲望構造

소설 속의 주인공이 갖는 욕망은 수평적으로든 수직적으로든 이동하게 된다. 이러한 욕망의 이동은 구성에 있어 긴장과 이완을 가져와 관점을 극대화하게 된다. 그러므로 작중인물의 욕망이 어떻게 이동하는가의 문제와 이동과정에서 부딪히는 장애적 요소에 의한 빛나간 상승이 어떻게 회귀하는가의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주인공의 갖는 욕망에 있어서 중핵적 요소를 중심으로 의미망을 분절하여,³⁾ 이를 시간 순서에 의하여 스토리로 재배열하여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보면, 다음과 같다.

- ⑥ 고죽은 부친의 사망과 모친의 가출로 인하여 석담 선생에게 맡겨져 소학을 익히고 소학교에 다녔었다.
- ⑦ 고죽은 신학문을 포기하면서부터 석담 선생 몰래, 그를 열정적으로 흉내내기 시작한다.
- ⑧ 고죽은 석담 선생이 없는 틈을 타서 顏體 雙鶴銘을 臨寫하다가 들킨다.
- ⑨ 운곡이 고죽의 글씨에 감탄하면서 묻자, 석담은 '才氣가 너무 승하고 道根이 막힌 字匠'이라 하고, 운곡의 권유로 '악연'이라고 하면서 문하에 들도록 허락한다.
- ⑩ 석담은 고죽의 성공적인 유력의 결과로 갖고 온 곡식과 필낭을 불태워 버렸다.
- ⑪ 고죽은 2년 동안의 혹독한 시련 속에서 용서를 비는 동안 석담 스승에 대한 애증의 불꽃이 타올랐다.
- ⑫ 고죽은 스승의 냉대를 느끼고 집을 나섰다가 용서받기까지 2년 동안이나 농사와 불목하니 노릇을 했다.
- ⑬ 고죽은 스승의 냉담함과 비정함에 반평생 시달려 오는 동안 스승의 분노와 탄식을 즐기게까지 되었다.
- ⑭ 고죽은 석담과 매죽 논쟁과 도예 논쟁을 벌이다가 꾸지람을 듣고 스승의 곁을 떠난다.
- ⑮ 고죽은 사회에 쏟아 부은 자신의 청춘과 자기 승인 문제에 대하여 허망감을 느낀다.
- ⑯ 고죽은 석담에게 글씨에서 금시조가 솟아오르며 杻象이 노닐던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심술궂게 이야기하다가 스승이 던진 버루뚜경에 맞고 스승의 곁을 떠난다.

3) 플롯은 ㉠㉡㉢ - ㉤의 순서

- ㉠ 고죽은 歌舞妓와 친일 유력인사들과 어울려 서화를 훌뿌리고 다니면서도 공허감에 사로잡힌다.
- ㉡ 고죽은 운곡 선생으로부터 석담이 기다린다는 말을 듣고 충격을 받는다.
- ㉢ 고죽은 스승에게로 회귀에 앞서 오대산 산사에 갔다가 벽화 금시조를 보는 순간, 객관적인 승인이나 가치 부여의 필요없이 자기의 글씨에서 단 한 번이라도 그런 경지를 느낄 수 있다면 자신의 삶은 충분히 성취된 것이라던 스승의 심정을 이해할 것 같았다.
- ㉣ 고죽이 석담의 문하로 돌아오던 날, 棺上銘旌을 고죽이 쓰도록 했다는 스승의 유언을 전해 듣고는 그 동안의 애증은 흔적없이 사라져 버린다.
- ㉤ 고죽은 秋史의 세계를 새롭게 인식하면서 스승 석담의 가르침을 이해한다.
- ㉥ 그러나 고죽은 추사의 예술관을 부정한다.
- ㉦ 반신이 마비되다시피 한 古竹이 잠에서 깨어난다.
- ㉧ 고죽은 스승의 眞蹟인 “金翅劈海 香象渡河”에서 살아 꿈틀거리는 필력을 보았다.
- ㉨ 고죽은 죽음을 예감하면서부터 자신의 작품을 모두 거두어들여려 한다.
- ㉩ 고죽은 거동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서화를 되찾으려는 집착을 버리지 않는다.
- ㉪ 고죽은 혼절하였다가 깨어나 스승과의 관계에서 前半生을 두 개의 상반된 예술관 사이에 끼어 피흘리며 괴로워했던 세월을 생각하며 자신의 평생이 무엇을 얻었는가를 자문하다가 혼절한다.
- ㉫ 고죽은 꿈 속에서 화려하게 비상하는 금시조의 등에 안타깝게 매달린다.
- ㉬ 잠에서 깨어난 고죽은 방에 불을 밝히도록 하고 회수한 자신의 서화들을 자평하면서 금시조를 찾곤 했으나 끝내 찾지 못한다.
- ㉭ 고죽은 자신의 전적이 한꺼번에 타 없어지는 불길 속에서 홀연히 솟아오르는 한 마리의 거대한 금시조를, 찬란한 금빛 날개와 그 힘찬 비상을 보면서 숨을 거둔다.

1. 欲望의 移動

작중인물의 욕망은 앞에서 살펴본 시적화자의 욕망보다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그 이동에 있어서도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텍스트인 금시조의 경우는 석담이 고죽에게 행사하고 있는 본질적인 폭력이 반복(h(d)c(i))에 의해서 고죽의 욕망은 이동하고 있으며 또한 고죽이 석담에게 상호적인 폭력을 행사(k(i)n(o))함으로써 그 이동의 방향이 달라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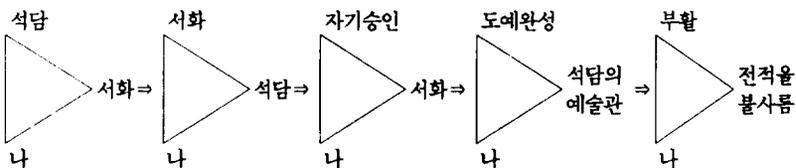
위에서 살핀 스토리를 중심으로 고죽의 욕망이 어떻게 이동되는가를 살펴보면,

고죽의 욕망은 우선 그 대상을 석담(①)에게 두고 있다. 즉, 글씨에 대한 욕망보다 많은 문하생들이 우러르는 석담이라는 인물을 대상으로 하는 욕망이 우선하고 있다. 그러나 석담의 문하에 입문하고 노력하여 성공적인 유력의 길을 걷는 다음부터는 그 욕망의 대상을 서화에 두게 되고(④), 석담은 이를 중개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러한 석담이 중개자로서의 전략은 고죽에게 도움을 주고 있으면서 동시에 짝패(double)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즉, 성공적인 유력의 결과로 갖고 온 곡식과 필낭을 불태워버린(④) 이후부터 고죽은 원한과 증오를 은밀하게 키우기 시작한다. 고죽이 어느 정도 서화에 자신감을 가지면서부터 그 동안의 상반된 감정인 애증(hatred)의 균형은 깨어지고 원한과 증오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청춘과 자기승인 문제에 대하여 회의를 느끼게 된다(①⑥⑧). 이러한 인생문제에 대한 회의는 원한과 증오를 증폭시켜 석담을 시기·질투하기에 이른다. 이러한 고죽의 시기·질투는 석담과 매죽 논쟁을 비롯한 도예 논쟁을 벌이면서(①) 그 동안 석담에게서 받은 폭력적 대우를 상호적으로 감행하는 양상으로 발전되고(⑧), 이로 인하여 석담을 떠난다. 그리고 상호적인 폭력의 한 수단으로 서화를 훌쩍리지만(⑨) 성취감보다는 폭력적인 행동의 하나로 말미암은 공허감에 사로잡히게 된다. 즉, 상대가 없는 폭력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죽과 석담 사이의 멀어진 거리를 중개하는 운곡에 의해서 고죽은 '떠남'에서 '회귀'로 전환하게 되고(⑩), 관상명정이 둘 사이의 거리를 없애주는 역할을 하게 되어 석담의 예술관을 이해하게 된다(⑪⑬).

그러나 고죽은 석담의 예술관을 부정하면서(⑭) 석담을 초월하려는 또 다른 욕망이 움트기 시작한다. 그 결과 그 동안 훌쩍리고 다녔던 서화를 회수하여 이를 확인하려 하지만 끝내 찾지 못하고 불을 사르도록 하고 그 불길 속에서 자신에게 다가와 있는 죽음의 부활(4)을 욕망하게 된다(⑮).

이를 욕망의 삼각형으로 제시하여 그 이동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4) 바슐라르, 『불의 정신분석』, 민회식 역, 삼성출판사, 1992, p.96.

고죽의 이러한 욕망의 이동은 욕망의 대상에 따라 그 강도가 달라지게 된다. 즉,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는 욕망에서부터 성취욕에 빠져 있을 때, 그리고 석담과 짝패 관계에 놓이게 될 때의 욕망에 대한 강도는 달라지는 것이다.

모방의 단계에서는 욕망의 대상을 모방의 대상으로 삼게 되지만 짝패 관계에 놓이면서부터는 장애물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러한 장애의 역할은 또 다른 중개가 되어, 고죽으로 하여금 탐닉에 빠지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러한 탐닉은 수평적 이동에서 빛나간 상승으로 볼 수 있다.

그러면 빛나간 상승이 어떻게 회귀되는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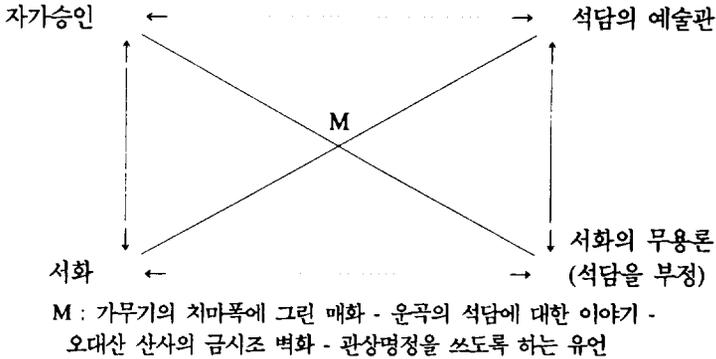
2. 빛나간 上昇

고죽은 석담에 대하여 모방욕망임을 부인하고 자발적인 욕망임을 내세우기 위해 매죽에 대한 논쟁과 도예에 대한 논쟁을 벌이고(㉠), 또 석담에게 서화의 무용론을 제기(㉡)하다가 석담의 결을 떠난다. 이러한 고죽의 욕망은 빛나간 상승의 시작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빛나간 상승은 자신의 성취를 가장하는 위선적 행동으로 탐닉에 빠지게 하고 있다. 그러나 가무기의 치마폭에 매화를 그리면서는 석담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고 회귀를 갈망하게 된다(㉢).

이러한 위선적 행동은 스스로의 상승이 빛나갓음을 시인하는 것이다. 이러한 시인은 운곡에 의해 스승을 찾게 되는 데서부터 회귀하는 것이다. 즉, 상승한 욕망의 단계를 역전시키는 것이다.

욕망의 단계를 역전시키는 것은 결국 관상명정을 쓰도록 했다는 스승의 유언(㉣)이다. 그러나 이러한 유언은 희생제에 의한 것이다. 즉, 본질적인 폭력을 애초에 없었던 것으로 돌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속이거나 폭력의 방향을 돌리거나 그 강도를 약화·순화시켜서 폭력의 효과를 줄이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석담의 죽음을 희생대체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석담으로 하여금 자신의 관상명정을 쓰도록 하는 성스러운 폭력을 행사(㉤)하게 하여 고죽의 폭력과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써 장애물로서의 석담은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이며, 추사체를 이해하게 되고 스승의 필체를 이해하게 된다. 그러나 이를 부인하게 되는 것은 금시조를 보게 되는 결말을 위한 욕망의 또 다른 역전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빛나간 상승으로부터 회귀하는 과정을 그레마스 기호학적 사각형으로 다음과 같이 나타내 볼 수 있다.



즉, 빛나간 상승은 서화를 통해서 자기승인의 문제를 추구하며 탐닉에 빠져 있다가 가무기의 치마폭에 매화를 그리면서 '회귀'하고자 하는 욕망이 싹트고(㉠), 이어서 운곡에게서 들은 석담이 찾는다는 이야기(㉡), 또 오대산 산사에서 본 금시조 벽화(㉢), 관상명정을 쓰도록 하는 유언(㉣)이 회귀의 과정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욕망들은 닫혀 있기도 하고 열려 있기도 한다. 어떻게 닫히고 어떻게 열리는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IV. 닫혀있는 欲望과 열려있는 欲望

고죽의 이차적인 욕망은 석담을 통하여 서도를 성취하는 일이다. 이 때 고죽은 서도를 성취하고자 하는 욕망에 있어서 모방의 대상인 석담과 장애물로서의 석담 사이에서 애증(hatred)이라는 상반된 감정을 갖게 된다. 이러한 이중적인 고죽의 감정은 중개자인 석담에 대하여 모방 대상으로서 가깝고자 하는 거리와 장애물로서 멀어지려는 거리라는 이중성을 갖게 된다.

따라서 석담은 장애물로서의 중개와 모방 대상으로서의 중개의 역할을 동시에

하게 된다. 즉, 주체는 석담과의 거리를 멀리하고자 하나, 가까워지려는 욕망으로 말미암아 석담과의 간극(divergence)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궁극적인 욕망인 서도 성취에 대한 욕망은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방해자로서의 대상은 닫혀 있고 가까이하고자 하는 대상이 열려 있을 경우 고죽은 그에게 닥치는 어떠한 시련(ⓐ)도 견딜 수 있는 힘으로 작용하지만 방해자로서의 역할이 열리면서 긴장관계는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석담이 죽은 후 다시 열려있는 욕망은 닫혀지면서 새로운 욕망을 열어 놓고 있다. 플롯의 문제로 텍스트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욕망의 구조는 고죽이 죽음에 임박하면서 과거를 돌이키며 새로운 욕망을 열어 놓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과거를 되찾는 것은 다른 사람을 모방했다는 것을 깨닫는 것⁵⁾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과거를 되찾아 모방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당신을 보았습니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수 있다. 즉, 당신이 떠남 이전으로의 회귀를 진실이라고 믿었던 윤리·도덕·법률이 오직 칼과 황금에 봉사하는 것임을 깨닫고 그 동안 추구해온 욕망을 부인하는 힘이 되어 ‘당신’을 현현하게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그 동안 열려있던 욕망인 땅을 통해서 배불리 먹고, 집을 통해서 인간적 권리를 행사하려는 것은 달아 버리고, ‘당신의 떠남’에서 ‘당신’ 곁으로 회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들을 ‘열려있다가 닫혀지는 욕망’과 ‘닫혀있다가 열려지는 욕망’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구 분	열려있다가 닫혀지는 욕망	닫혀있다가 열려지는 욕망
당신을 보았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땅→추수→저녁거리→인격→생명 ○ 집→민적→인권→정조 ○ 이웃, 장군 ○ 윤리·도덕·법률 ○ 칼과 황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신의 모습
금시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담이라는 인물 ○ 방해자로서의 석담 ○ 추사체 ○ 석담의 서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승 석담과의 관계 ○ 탐닉하던 시절과 혈연 ○ 부활(금시조)

즉, 욕망은 열려있다가 닫히고 닫혀있다가 열리는 과정을 통해서 텍스트는 문학

5) 르네 지라르 앞의 책, p.47.

적인 극대화에 이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당신을 보았습니다」의 경우에는 그 동안 닫혀있는 욕망을 열 수 있는 힘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 ‘눈물’, ‘능욕’, ‘항거한 뒤에 남에게 대한 격분’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금시조」의 경우는 세 가지로 제시해 볼 수 있는데, 우선 석담과의 관계가 새롭게 열리는 힘으로 작용하는 것은, 가무기의 치마폭에 그린 매화(㉑)와 운곡에게서 들은 이야기(㉒), 그리고 금시조 벽화(㉓)이며, 다음으로는 탐닉하던 시절과 혈연이 새롭게 열리는 것은 스승의 죽음으로 인한 실패의 상실(㉔), 그리고 석담이 행사한 성스러운 폭력(㉕)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활을 위한 몸부림(㉖㉗㉘㉙)은 석담과 실패의 관계에 놓이던 ㉔의 행위를 은연중에 재연하고 있는 성스러운 폭력으로 영혼의 순화(purification)를 실현(㉚)시키고 있는 셈이다.⁶⁾

V. 結 論

무엇을 모방하고자 하는 욕망은 그 욕망 대상인 다른 사람이 되려는 것이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 시적화자나 작중인물이 갖는 욕망은 무한한 다양성을 지니고 있다. 문학 작품 속에 나타나는 이러한 욕망은 그 어떤 일관성도 없으며, 그 강도도 일정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이러한 욕망의 다양성은 욕망 주체인 시적화자나 작중인물이 대상에 대하여 어떠한 힘을 느낄 때, 강렬해지는 것이다. 그리고 대상에 대한 힘은 대상과 중개자의 거리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다.

욕망은 문학작품의 한 끝에서 다른 한 끝까지 뻗어 있는 동적인 구조⁷⁾로서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구조는 욕망과 관련된 여러 요소들의 힘에 의해서 변화된다.

이 글에서는 ‘시적화자의 욕망구조’와 ‘작중인물의 욕망구조’를 통하여 인물들의 욕망이 어떻게 이동되고, 또 어떻게 관점을 극대화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시적화자의 욕망구조’에서는 화자와 청자와의 거리, 화자와 화제와의 거리에 따라 욕망이 이동되고 있음을 볼 수 있었으며, ‘작중인물의 욕망구조’에서는 본질적인 폭력에 의해서 욕망은 이동하게 되고 상호적 폭력의 한 방편으로 욕망의 이동 방

6) 마르틴 콜랭, 「인간과 욕망」, 박운영 옮김, 도서출판 예하, 1989, p.15.

7) 르네 지라르 앞의 책, p.111.

향은 빛나가게 되며, 또한 폭력의 수단으로 회귀하는 문제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닫혀있는 욕망과 열려있는 욕망'에서는 욕망의 이동에 따라 열려있다가 닫히기도 하고, 닫혀있다가 열리기도 하면서 문학적 관점을 극대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 글은 욕망이 어떻게 변주되어 역동성을 갖는가, 이러한 욕망이 어떻게 분지되고 있는가, 닫혀있는 욕망이 어떻게 열리며, 열려있는 욕망이 어떻게 닫히는가를 해명함으로써 문학적 이해를 돕고자 했다.

이 글에서는 구조주의적 해체가 아닌 문학의 연장선 위에서 욕망의 구조를 살펴 그 원리를 해명함으로써 창작과정에 기여하려는 소박한 뜻도 담고자 했다.

참고문헌

김준오, 『시론』, 문장, 1982.

김현, 『르네 지라르 혹은 폭력의 구조』, 나남신서, 1987.

르네 지라르, 『소설의 이론』, 김윤식 역, 삼영사, 1983.

마르틴 콜랭, 『인간과 욕망』, 박윤영 역, 예하, 1989.

비슐라르, 『불의 정신분석』, 민희식 역, 삼성출판사, 1992.

아니카 르메르, 『자크 라캉』, 이미선 옮김, 문예출판사, 1994.

안성수, 『한국 근대 단편소설의 플롯연구 시론』,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9.

양영길, 「'님의침묵'과 '진달래꽃'의 시간구조 비교 연구」, 『백록어문』 제9집, 1992.

양영길, 「'님의 침묵'의 구조 연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1.

오세영 외, 『구조와 분석』, 도서출판 창, 1993.

우찬제, 『욕망의 시학』, 문학과지성사, 1993.

자크 라캉, 『욕망이론』, 권영택 편, 문예출판사, 1994.

장일조, 『욕망과 충족의 변화체계』, 홍인문화사, 1978.